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⑩ 사후세계 안내서 〈티베트 사자의 서〉



▶한줄요약
모든 일의 결과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죽음서 발현되는 강렬한 의지 '業'

지난 연재에서 살펴 본 정토불교의 내영(來迎) 및 왕생(往生) 사상과 현대 죽음학의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은 사망 직후 일어날 현상과 임종을 맞이할 때의 태도에 관해 알려준다. 그러나 죽음 이후 49일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르도 퇴돌(bardo thödrol)〉,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티베트 사자의 서〉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뒤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책으로 일종의 사후세계의 안내서이다. 칼 융(Carl Jung)은 1927년 영역판으로 발간된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래 수년 간 이 책은 언제나 나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생각, 영감,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한다"고 서문을 남겼다.

융은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다. 인간의 심리란 여러 층이 겹쳐진 복합체라는 '콤플렉스' 이론을 창시했고 인간이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뉜다는 유형론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성격유형 검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MBTI는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되었다. 한마디로 융은 현대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학의 거장이다. 이런 그가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했다는 점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티베트 사자의 서〉의 원제인 〈바르도 퇴돌(bardo thödrol)〉에서 바르도(Bardo)는 '둘(do) 사이(bar)'란 뜻으로 낮과 밤의 사이, 즉 죽음 이후 다음 생을 받기전의 기간으로 '사후세계'를 말한다. 퇴돌(thödrol)은 '듣는(thos) 것으로 해탈(grol)에 이른다'는 의미로서 〈바르도 퇴돌〉은 '사후세계에서 듣는 것 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책'이란 뜻이다.

20세기 초 옥스퍼드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에반스 웬츠(Evans Wentz)는 인도 북서부 다르질링에서 〈티베트 사자의 서〉 필사본을 발견했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8세기경 파드마 삼바바(Padma Sambhava)란 성인이 이 책을 저술했음을 밝혀냈다. 이후 웬츠는 1927년 원본을 영어로 번역한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출간했다. 책이 발간되자 1938년 스위스 초판본에는 융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서평을 달았다. 이후에도 〈티베트 사자의 서〉는 여러 판을 거듭하며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퍼졌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보통 누군가 죽으면 49재를 치른다. 49재는 49일 동안 망자를 위해 재(齋)를 올리는 종교의례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사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책으로 망자는 '치카이 바르도(Hchikhahi Bardo: 죽음 직후 경험하는 사후세계)', '초에니 바르도(Chösnyid Bardo: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사후세계)', '시드파 바르도(Sridpahi Bardo: 환생의 길을 찾는 사후세계)의 세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세 가지 바르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망자가 도달하는 첫 번째 세계인 치카이 바르도는 사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지속된다. 사망의 순간에는 투명한 빛이 나타난다. 생전에 진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부단히 한 사람은 빛에 인도되어 윤회가 없는 세계로 곧바로 들어간다. 만약 최초의 투명한 빛을 알아채지 못하면 두 번째 투명한 빛이 사자(死者) 앞에 나타나고 사자가 생전에 지은 카르마(karma)에 따라 빛이 지속되는 시간이 결정된다.

투명한 빛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자는 이후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된다. 사망 후 심체(心體)가 몸 밖으로 나오면 사자는 "내가 죽은 건가. 살아 있는 건가?"라 생각한다. 그는 아직 생사를 분간하지 못한다. 마치 살아 있을 때처럼 가족을 보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바르도에서 투명한 빛을 알아보지 못한 자에게는 두 번째 세계인 초에니 바르도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는 다섯 번째 날부터 열여덟 번째 날까지 지속된다. 이 단계에서는 생전에 쌓았던 카르마가 만들어내는 환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자는 자신이 수의로 갈아입혀지고 음식물이 차려진 광경을 보게 되고 가족들이 우는 소리도 듣는다. 자신이 살아 있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사자의 모습도 볼 수 없다.

이 세계에서는 빛 한가운데에서 천 개의 천둥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리의 빛과 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빛과 소리를 알아채지 못하면 사자는 49일을 사후세계에서 보내야 한다.

삶의 노력, 마지막 순간 나와
선행과 수행의 과보가 드러나
지혜의 빛 속 사후 세계 진입

망자는 여러 색의 빛을 보게된다. 짙은 푸른색이 발하는 빛, 흰색으로 발하는 빛은 진리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이다. 어두운 회색은 지옥에서 나오는 빛이다. 생전에 타인을 해하려는 마음을 자주 냈다면 했다면 회색빛을 좋아하게 만든다. 어두운 붉은색은 아귀계로부터 나온 빛이다. 강한 탐심을 내었다면 이 빛을 좋아하게 된다. 생전에 시기와 질투를 했다면 어두운 초록색 빛에 이끌린다. 이는 아수라의 세계에서 나오는 빛이다. 어두운 푸른색 빛에 이끌린다면 축생계에 떨어져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

열여덟 번째 날부터는 분노의 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머리가 셋인 분노의 신이 몸에서 불을 내뿜으며 사자를 노려보거나, 해골 그릇과 도끼를 들고 있는 신, 인간의 시체와 해골을 든 신이 나타나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판을 들고 고함을 치며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에서 나타난 환영이다. 만약 이 신들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에 망자는 환생의 길을 찾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계인 시드파 바르도에 들어간다. 이 단계는 열아홉 번째 날부터 마흔아홉 번째 날까지 지속된다. 만일 사자가 천상계에 태어나려 하면 천상세계의 환영이, 인간계, 아수라, 축생계, 아귀계, 지옥에 태어나려고 하면 그곳의 환영들이 나타난다. 환영을 따라가면 윤회의 세계에 떨어져 방황하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시드파 바르도 단계에서도 붓다와 진리, 성인들을 명상하면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선신(善神)이 나타나 망자가 생전에 행한 선행을 헤아리고, 동시에 악신(惡神)이 와서 사자의 악행을 하나하나 헤아린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카르마의 거울이 진실을 비추며 분노한 죽음의 신은 사자에게 비참한 처벌을 내린다. 그러나 사자의 몸은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혼절할 뿐이다.

정신을 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여러 색깔의 빛이 주위를 비추게 된다. 어두운 흰색은 천상계에서 오는 빛이고, 어두운 초록색은 아수라계의 빛, 어두운 노란색은 인간계의 빛, 어두운 푸른색은 축생계에서 오는 빛이며, 어두운 붉은색은 아귀계의 빛, 회색은 지옥에서 오는 빛이다. 사자의 몸은 카르마의 힘에 의해 내생에 태어날 곳과 닮은 빛을 띤다.

또한 사자가 태어날 장소의 징조와 특징이 나타난다.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면 보석으로 치장된 사원이나 저택이 보이고, 아수라계에 태어날 것이라면 울창한 숲이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불꽃이 보이며, 축생계에 태어날 운명이면 바위굴과 안개가 나타나고, 아귀계에 태어날 자는 황량한 평원, 동굴, 밀림 사이의 빈터, 폐허가 된 숲이 보인다. 만일 지옥으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음침한 대지, 흑백의 건물, 땅 위에 난 검은 구멍, 검은 길이 나타난다.

짧게 요약했지만 〈티베트 사자의 서〉의 분량은 꽤 많다. 그러나 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는 죽음 이후 사자(死者)가 체험하게 될 내용에 대한 안내이며, 둘째는 사자에 대한 인도이다. 사실 〈티베트 사자의 서〉는 독서를 위한 일반적인 책이라기보다 49일 동안 종교적 의례를 치르면서 사자를 위해 읽어주는 의례집이라 볼 수 있다.

책에서는 사자가 겪게 될 공포를 묘사하거나 내생에 태어날 장소를 설명하며 '살아 있을 때' 선행을 하거나 수행을 닦거나 진리를 추구한 자는 그것이 환영임을 알아챌 힘이 있다고 거듭해서 말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살아 있을 때'란 표현이다.

모든 일의 결과는 우연이나 행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일이 벌어지기 전의 '과정'이 있고 그 흐름이 이어져 결과를 만들어낸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자는 사후에 악처(惡處: 지옥, 아귀, 축생)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사후 윤회없는 세계에 이르거나 선처(善處)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전의 선행, 명상, 진리의 탐구의 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티베트 사자의 서〉는 사자를 위한 책이지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는 행위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정토계 경전에서는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았더라고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 일심으로 십념(十念)을 행하면 왕생을 성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임종 때는 극도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이며 그 순간 염불하는 힘은 뼛속 깊이 염불을 생활화했을 때 발현된다.

지독한 고통이 온몸을 지배하는 순간,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는 어렵다. 축구나 마라톤처럼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를 예로 보면, 만약 선수가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뽑아내는 힘은 경기에 '참여하기 전'의 훈련을 통해 나온다. 죽음을 맞이할 때 할 수 있는 생각과 행위 또한 마찬가지다. 죽음에 다다르기 '전' 삶에서의 노력과 경험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강렬한 의지를 만들어낸다.

욕망에 이끌리며 살아온 사람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평생동안 노력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같지 않을 것이다. 후회 없는 죽음, 인간다운 죽음, 편안한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을 때 했던 행위'가 뒷받침된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2 생명살림 법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10월 25일(화) 오전 10시 (법문 11시 20분)
◈ 장 소 : 수원 봉녕사
◈ 내 용 : 기도 · 염불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불교상담개발원장)
◈ 문 의 : 02)737-7378, http://www.kbcd.org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